

# G2경제 현황과 지역경제 시사점

이글 책임연구원(glee@bnkfg.com)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미국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주가는 하락하고 달러가치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리세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2023년에도 미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1%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도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가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약화됐다. 미중 갈등,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등이 주요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내년에는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반등하겠으나 미약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전세계 GDP의 42.4%, 수입수요의 23.2%를 차지하는 G2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주요국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불확실성도 성장하방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동남권 경제는 내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하면서 무역구조 개선과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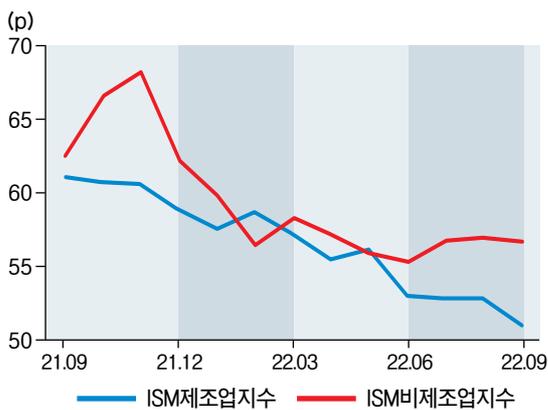
## 미국경제, 고물가 대응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지속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2022년 1~9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8.3% 오르며 지난해 상승률(4.7%)의 2배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금년 6월에는 전년동월대비 9.1% 상승했는데 이는 1981년 11월(9.6%) 이후 약 41년 만에 가장 높은 오름세이다.

미연준(Fed)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통화 긴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년 3월중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추가로 한 차례의 빅스텝(0.5%p 인상)과 세 차례의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금년 2월 0.25%에서 9월에는 3.25%까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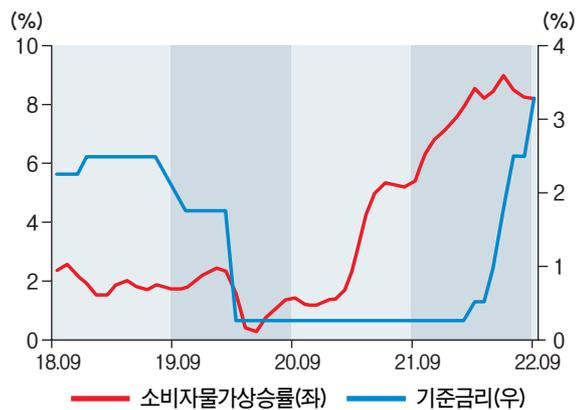
이와같은 높은 인플레이션 및 강력한 통화긴축은 경제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판단의 주요 근거지표인 ISM 지수<sup>1)</sup>를 보면 제조업은 금년 9월에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인 50.9p까지 하락했다. 비제조업 지수도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55.3p)를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미국 ISM 지수



자료 : 美 공급관리협회, 연합인포맥스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기준금리



주 :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

자료 : 美 노동통계국, 연합인포맥스

1) 미 공급관리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미국 전역의 산업별 공급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원자재공급, 재고 등 5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치화한 지수. 제조업지수와 서비스업지수로 구분되며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확장을, 50이하면 수축을 예고

2) 2022년도 미국 GDP 부문별 증가율 (%), 전기비 연율, 2022.1Q → 2022.2Q → 2022.3Q)

· 민간소비 : 1.3 → 2.0 → 1.4    · 민간투자 : 5.4 → -14.1 → -8.5

· 수출 : -4.6 → 13.8 → 14.4    · 정부지출 : -2.3 → -1.6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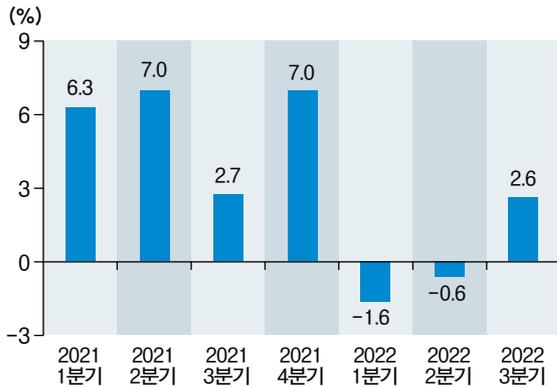
## 성장 하방압력은 크게 확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3분기에는 소폭 반등(2.6%, 전기비 연율)했으나 1분기와 2분기중 각각 -1.6%, -0.6%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리세션(Recession, 경기침체)<sup>3)</sup>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중 하나로 인식되는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아직까지 미국 NBER(전미경제연구소)은 공식적으로 리세션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sup>4)</sup>. GDP 외에도 최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는 고용, 소득, 생산 등 다수 경제 지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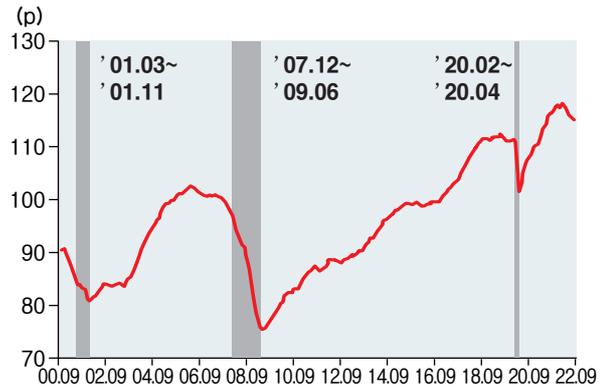
하지만 2000년대 이후 4번째 리세션이 내년중 선언될 가능성이 높다. 생산 활력이 약해지고 2분기 연속 GDP가 감소한 가운데 경기선행지수<sup>5)</sup>가 2022년 3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기 하방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sup>6)</sup>. 블룸버그 발표(2022년 10월)에서도 1년 안에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을 100%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분기별 경제 성장률



주 : 전기비 연율  
자료 : 한국은행

미국 경기선행지수



주 : NBER에서 리세션 선언한 기간은 음영처리  
자료 : 컨퍼런스보드, NBER, 연합인포맥스

3) 리세션(경기침체)은 경기가 하강하는 과정으로 전환되는 경기후퇴의 초기 단계를 의미.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전미경제연구소)이 미국 리세션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공식적으로 발표. 일반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리세션에 진입한 것으로 보지만 고용, 생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선언

4) NBER은 2000년 이후 리세션을 총 3번(2001.1~4월, 2007.4~2009.2월, 2020.2~4월) 선언

5) 경기선행지수(컨퍼런스보드 발표 기준)는 제조업 평균노동시간,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제조업 신규주문, 민간 주택허가건수, S&P500, 장단기금리차 등 10개 경제지표의 가중평균값

6) 2001년과 2007년 리세션은 각각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및 6개월 연속 하락한 후 시작. 2020년 리세션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선행지수 하락 없이 급격히 시작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다만 2006년 4~11월(8개월간)은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이 선언되지 않았던 유일한 기간

## 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금년 1~10월중 각각 -9.9%, -29.8%의 하락률을 기록했다<sup>7)</sup>. 미국은 주식 등 금융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인만큼 일부에서는 역자산 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sup>8)</sup>.

달러화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미달러지수<sup>9)</sup>는 작년말 95.6p에서 금년 9월중 114.8p까지 높아졌다. 이는 2002년 4월(115.4p) 이후 20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화 강세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2022년 10월중 4.34%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의 전조로 해석되는 장단기 금리역전도 나타났다. 2021년말 미국채 2년물 금리는 10년물보다 78bp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 3월 역전된 후 9월말의 경우 45bp 높게 나타났다. 장단기 금리차가 45bp를 넘어선 것은 2000년 4월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7) 다우지수는 전년말 36,338.3p에서 금년 10월말 32,733.0p까지 -9.9% 하락하며 추세 전환을 보임. 나스닥종합지수도 같은 기간 15,645.0p에서 10,988.6p까지 -29.8%의 하락세를 나타냄

8) 미국의 2021년말 기준 금융자산 비중은 71.5%로 일본(63.0%), 영국(53.8%), 한국(35.6%) 등 주요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 (금융투자협회 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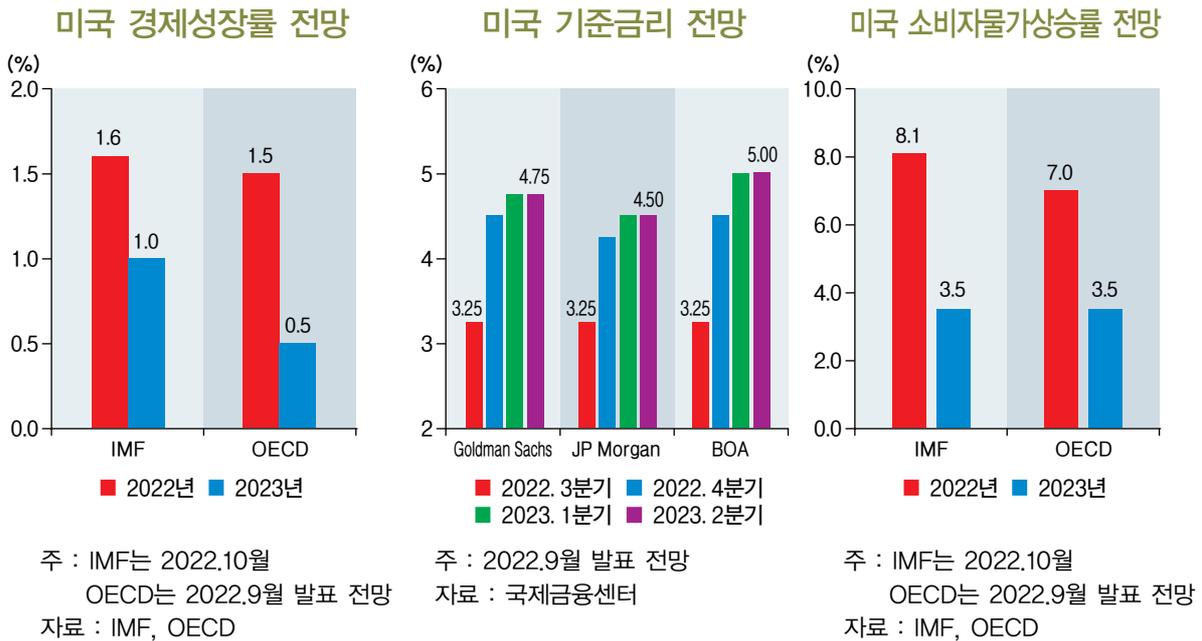
9) 달러인덱스는 주요 6개국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대비 미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한 값

## 2023년 미국 경제, 1% 상회하는 성장 기대 어려워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은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 IMF와 OECD는 최근 발표를 통해 2023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0%, 0.5%로 제시했다. 또한 S&P, 피치 등 주요 민간 신용평가사들도 각각 0.2%, 0.5%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2023년 미국 경제는 1%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sup>10)</sup>.

기준금리 인상도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에서는 2023년 상반기중 기준금리가 4.5~5.0%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년 물가 상승률은 기준금리 인상, 기저효과, 공급망 차질 개선 등으로 올해 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우전쟁 등의 영향으로 미연준의 장기 물가 목표(2%) 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MF와 OECD는 내년도 미국 물가상승률을 3.5%로 전망했다.



10) S&P 및 피치의 2022.9월 발표자료 기준

## 중국경제, 성장세 약화

중국 경제도 금년들어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 제로코로나 정책, 미중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금년 1~9월 수출 증가율은 13.6%에 그치며 지난해(29.9%)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도 부진하다. 대도시 폐쇄(상해·선전) 등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정책의 부정적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 소매판매의 경우 지난해 9.3% 증가했으나 올해 1~9월중 감소(-0.1%)세로 전환됐으며 고정자산투자율도 같은기간 12.8%에서 7.3%로 크게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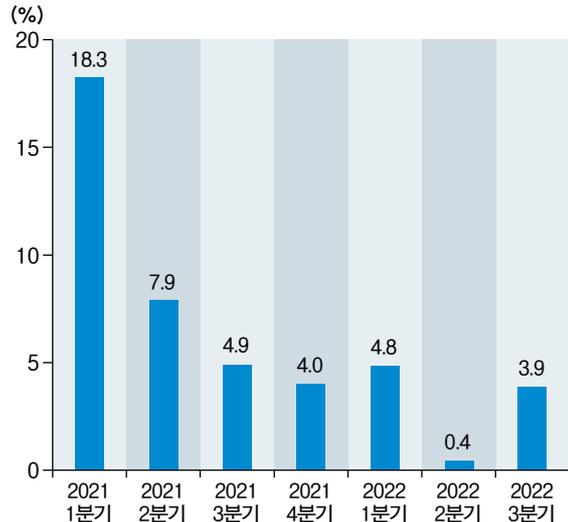
분기별로 보면 금년 3분기중에는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산업생산도 늘어났다. 경제성장률도 지난 2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쳤으나 3분기에는 3.9%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둔 지난 5월 적극적인 지원책을 발표한 데 따른 긍정적 영향으로 파악되나 반등수준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21년	2022년 (%)			
		1분기	2분기	3분기	1~3분기
수출액증가율	29.9	15.6	12.7	12.4	13.6
고정자산투자율	12.8	10.8	6.4	5.8	7.3
소매판매증가율	9.3	1.6	-4.9	3.5	-0.1
산업생산증가율	6.7	6.3	0.6	4.8	3.6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中 국가통계국, WTO, 연합인포맥스

중국 분기별 경제 성장률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中 국가통계국,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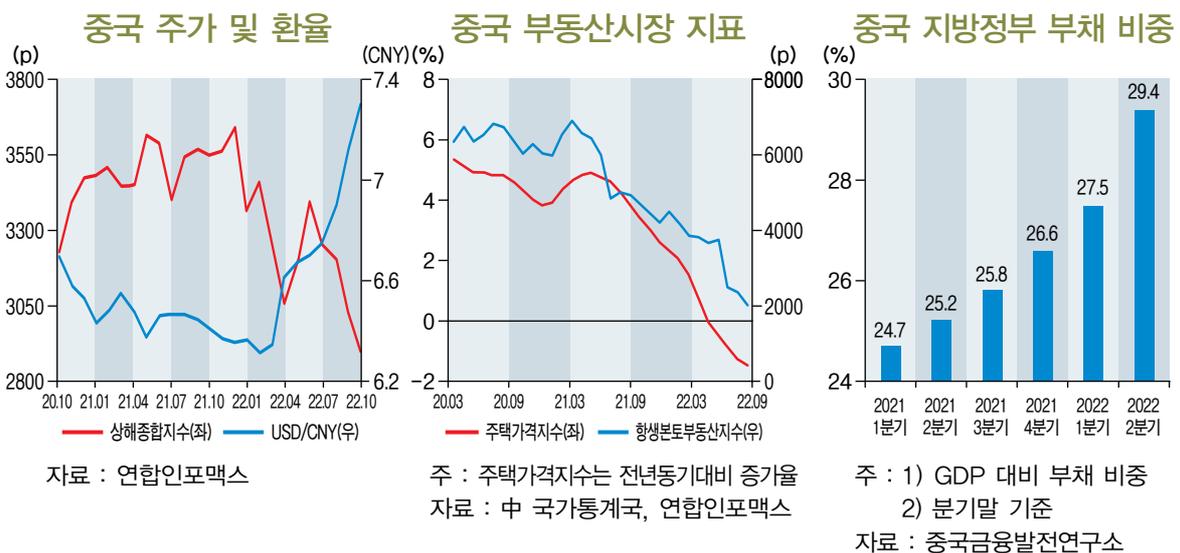
## 금융시장 불안 · 부동산 침체 ·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부각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상해종합지수는 금년 10월말 2,893.5p를 기록하며 올해들어 -20.5% 하락했다. 이는 2020년 5월(2,852.4p) 이후 2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위안/달러 환율도 2022년 10월말 현재 달러당 7.30위안으로 1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sup>11)</sup>. 특히 2년여 만에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며 ‘포치(破七, 달러당 7위안 초과)’ 상태에 진입했다<sup>12)</sup>.

부동산 침체도 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주택가격은 2015년 10월부터 6년 7개월간 증가한 후 금년 5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하며 2022년 9월중 전년동월 대비 -1.5%까지 하락폭이 확대됐다<sup>13)</sup>. 또한 주택담보대출 상환거부사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채무불이행 등도 시장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정부도 토지판매 수익 감소, 부채 확대, 금리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졌다. 경기위축시마다 인프라 투자를 통해 위기를 벗어났으나 부동산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부채비중도 지난해 1분기 24.7%에서 올해 2분기중 29.4%까지 급등했다.



11) 제로 코로나 정책, 부동산 시장 위기, 경기 둔화 등이 위안화 약세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

12) 위안/달러 환율은 2008년 5월 이후 11년 3개월 동안 달러당 7위안을 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시장에서 ‘포치’는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간주

13) 최근 6개월(2022년 4~9월)간 주택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0.7(4월) → -0.1(5월) → -0.5(6월) → -0.9(7월) → -1.3(8월) → -1.5(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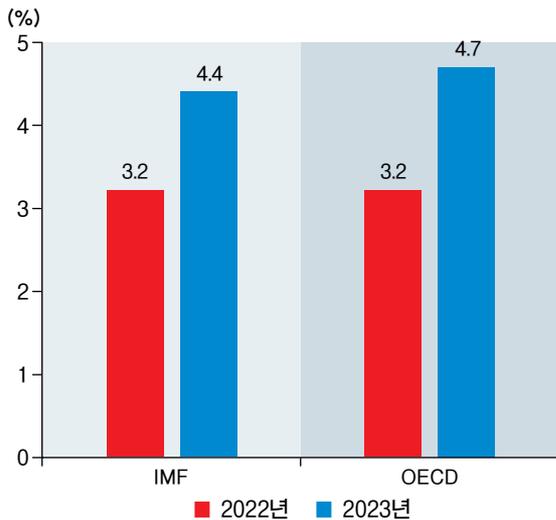
## 2023년 중국 경제, 소폭 반등에 그치며 부진 지속될 전망

2023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와 OECD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3.2%<sup>14)</sup>, 내년에는 4.4~4.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률 상승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주택대출금리 인하, 가격하락지역 주택대출금리 하한 완화 및 철폐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안정보장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기준환율 산정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중국경제는 금년초 발표된 정부의 성장목표치인 5.5%를 하회하는 미약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갈등, 글로벌 수요 둔화, 금융시장 불안, 자본유출 압력 확대 등으로 인해 성장활력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주 : IMF는 2022.10월  
OECD는 2022.9월 발표 전망  
자료 : IMF, OECD

중국 주요 경기부양책

구분	내용
부동산시장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대출금리 인하(2022.5~)</li> <li>지방정부의 가격하락지역 주택대출금리 하한 완화 및 철폐 허용(2022.9~)</li> <li>주택 매각후 재구입시 소득세 환급(2022.10~)</li> <li>부동산기금 설립 추진(2022.8~)</li> <li>판자촌 개조 특별채 발행 추진(2022.8~)</li> </ul>
금융시장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안정보장기금 설립 추진(2022.8~)</li> <li>기준환율 산정 적극 개입(2022.8~)</li> <li>외화에금지급준비율 인하(2022.9)</li> </ul>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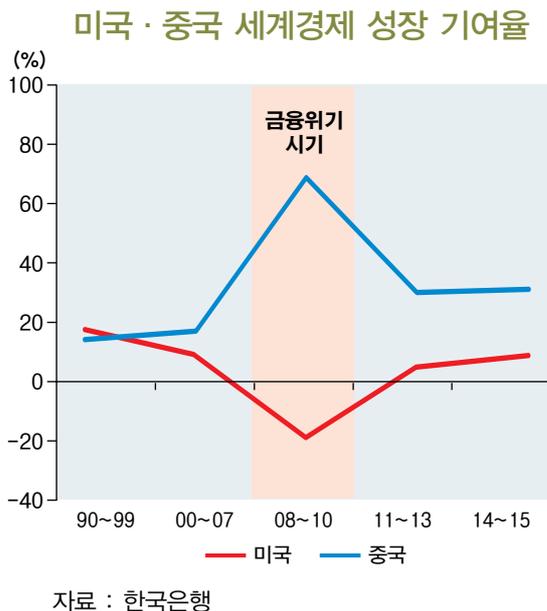
14) 다만 S&P,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2022.9월 발표 기준)는 2022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8%로 제시하며 3%를 밑돌 것으로 예상

## 국내외 경제, G2 경제의 동반 침체로 단기간내 회복 기대 어려워

전세계 GDP의 42.4%, 수입수요의 23.2%(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G2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세계경제에 대한 반등 기대가 높지 않다. 특히 주요국 통화긴축 지속, 공급망 불안,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도 성장의 하방압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위기상황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했으나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에 따라 세계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08~10년중 중국의 세계경제 성장 기여율의 경우 76.1%에 달한 바 있다. 하지만 G2 경제의 동반 침체가 예상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빠른 반등에 대한 기대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대외여건 악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 부담도 높일 전망이다. 미국 금리인상 및 달러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도 생산, 소비, 수출 등 국내 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G2 갈등으로 최대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sup>15)</sup>.



**국내 기준금리 및 원/달러 환율 전망**

구분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국내기준금리 (%)	3.25	3.50	3.50
원/달러 환율	1,447	1,450	1,431

주 : 국내기준금리는 주요기관 전망치  
원/달러 환율은 해외B 전망치 평균값  
자료 : 연합인포맥스

15) 미국은 중국 투자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반도체지원법 및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인 칩4 등을 통해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확립을 추진 중. 한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미·중 반도체 갈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

## 동남권 경제, G2 리스크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력 확보 시급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국은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뿐만 아니라 동남권 경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무역경로를 통한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 교역 대상국인 G2의 수요 둔화는 소비재, 중간재 등을 중심으로 지역수출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신규판로 정보, 마케팅, 무역금융, 인력 등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금융경로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요구된다. 글로벌 통화 긴축 지속으로 지역의 기업은 원가 및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개인은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 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한계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G2 침체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G2에 대한 수출의존도<sup>16)17)</sup> 및 품목집중도를 낮추는 무역구조 개선과 함께 수입수요국 시장 변화에 맞춘 제품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동남권 對G2 3대 수출품목**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9월)
1위	자동차 (20.5)	자동차 (23.8)	자동차 (24.1)	자동차 (20.2)	자동차 (24.4)
2위	석유제품 (14.6)	석유제품 (12.1)	석유제품 (9.5)	석유제품 (8.4)	석유제품 (7.1)
3위	자동차부품 (6.7)	자동차부품 (6.0)	자동차부품 (5.4)	선박해양 구조물·부품 (6.5)	자동차부품 (6.1)
비중합계	41.9	41.9	39.0	35.0	37.6

주 : 1) MTI 3단위, 수출금액 기준  
 2) ( )내는 G2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16) 동남권의 對G2 수출비중은 2010년 23.3%에서 2022년(1~9월 기준) 29.4%로 6.1%p 증가

17)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 내수진작 정책(공동부유) 등이 가시화되면서 자동차, 석유제품, 기계 등 동남권 주력제품의 對G2 수출 부진이 우려

[ 참고문헌 ]

한국은행,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2022.10  
 \_\_\_\_\_, “최근 중국정부의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2022.10  
 \_\_\_\_\_, “최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2022.9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10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2.9  
 연합뉴스포맷스, news.einfomax.co.kr  
 한국무역협회 K-stat, stat.kita.net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02	동남권 신공학과 지역경제의 미래
03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04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06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과제
07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09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11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1년 동남권 경제

2022

01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02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03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04	원자재 시장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05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 변화 특징
0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 ICT산업 현황
07	2022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금융시장 변화 분석
09	동남권 인구가동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G2경제 현황과 지역경제 시사점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리다

BNK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벤처투자 BNK 씬뉴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2-10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2년 10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